



‘학생의 꿈, 교원의 사랑, 학부모의 믿음’

가정통신문

발송일 2020.10.28

발송처 입암중학교

문의전화 534-2901

가정에서의 인권교육 안내

가정에서의 인권교육은 기본적으로 가족 간의 사랑에서 출발합니다. 행복한 가정생활 속에서의 형제애, 가족 간의 예절, 나아가 이웃 간의 예절 등이 가정에서의 인권교육의 본질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 가정, 지역사회의 상호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인권을 소중히 여기고 인권에 관심을 가지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될 때 우리 학생들이 더욱 밝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습니다.

1. 독립된 인격체로서 내 자녀 바라보기

비난 받으며 자란 어린이는 욕하는 걸 배우고,
조롱 속에서 자란 어린이는 부끄러움을 배우고,
책망 받으며 자란 어린이는 죄의식을 배운다.

용기를 얻으며 자란 어린이는 자신감을 배우고,
공정함 속에 자란 어린이는 정의감을 배우고,
인정받으며 자란 어린이는 그 자신을 사랑할 줄 안다.

〈 자녀존중 십계명 〉

1. 자녀도 독립된 인격체라는 인식을 부모가 먼저 가져야 한다.
2. 가정 안에서의 의사결정에서 자녀의 의견도 존중되어야 하고, 가족회의 등을 통해 민주적이고도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한다.
3. 자녀의 진로에 대해 부모는 단지 조언의 역할에 만족해야 한다.
4. 형제·자매간에 성별, 나이, 학업 성적 등의 이유로 차별대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
5. 자녀를 이웃의 자녀들과 비교해서는 안 된다.
6. 자녀가 잘못을 했을 때는 일방적인 체벌보다는 왜 잘못인지를 깨닫게 하고, 스스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7. 교육적 체벌도 가급적 삼가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정이 섞여 있지 않은지 부모 자신이 먼저 성찰해야 한다. 자녀를 때리지 않고도 기를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욕설을 해서는 안 된다.
8. 자녀를 흥분한 상태에서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9. 자녀들이 다른 사람의 권리도 존중할 줄 아는 생각과 생활태도를 지니도록 늘 가르쳐야 한다.

10. 자녀의 일상생활에 대해 깊은 관심을 지니되, 자녀의 사생활도 보호해주어야 한다.

2. 가정 내 인권교육의 방법론

가. 인권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가족구성원 실천 예시)

- 1) 일주일에 한번이라도 인권에 대해 생각을 해 보고 아래의 내용을 예로 대화의 시간을 가져보기
 - 인권과 관련된 뉴스나 화제가 되는 사건을 주제로 밥상머리 교육
 - 세계 인권선언이나 아동권리협약 등의 문건의 생성 이유와 그 의의
 - 공정무역의 뜻과 의미
 -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일어나는 아동 노동 착취와 같은 현실적인 사례
 - 최근 일어나는 아동학대에 관한 생각
 - 가정, 학교, 사회생활에서 인권보호와 침해의 사례
 - 그 밖에 매체 등에서 접하게 되는 다양한 인권 관련 사례
- 2) 「서로 제대로 사랑하기 열가지 약속」, 『인권약속』 등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가족들의 약속을 정하여 꾸준히 실천해 보기
- 3) 학교, 지역사회에서 전개하는 다양한 인권관련 행사 참가해 보기

나. 인권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학부모님 실천 예시)

- 1) 자녀의 사생활 존중하기
 - 자녀 일기장 몰래보지 않기
 - 자녀 휴대전화 몰래 보지 않기
 - 자녀 책상, 가방 뒤지지 않기
 - 자녀 우편물, 전자우편 몰래보지 않기
- 2) “안돼!”라고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않기
 - 긍정적이며 권유형의 표현으로 대화하기 “이렇게 해보는 게 어떨겠니?”
- 3) 자녀의 인격 존중하기
 - 다정하게 이름 불러주기
 - ‘야, 임마, 이 새끼’ 등 감정적 표현 사용하지 않기
 - 자녀의 말 끊지 않기
- 4) 자녀의 의견과 선택의 권리 존중하기
 - 다른 자녀와 비교하지 않기

2020년 10월 28일
입 암 중 학 교 장

